

26일까지 롯데갤러리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초대전 여는 임현채 작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위로



대표작 '무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임현채 작가'

아마도 전시장에서 임현채 작가의 '무게' 연작 시리즈를 본다면 모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듯하다. 자기 몸의 수백 배는 되어 보이는 짐을 이고 있는 아주 작은 코끼리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림이 풍선이나 솜사탕처럼 '부피는 크지만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것들'이라는 점에 잠시 안도하며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임 작가의 작품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위로다.

서양화가 임현채(39) 작가 초대전 '그림에도 불구하고'가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롯데갤러리가 매년 2명씩 선정하는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전시다. 임 작가를 인터뷰 하기 전날 마침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축하인사부터 건넸다.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작업한 드로잉과 회화 2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건 장난감, 빨래, 음식 등이다. 결혼과 육아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변화된 모습으로 위태롭게 쌓여있는 장난감이나 옷가지 등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전 제 작업들은 어떤 공간을 바라보며,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공간의 풍경이나 유년시절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떼어와 캔버스에 그려 넣곤했죠. 특히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이 많았어요. 멀리 정자 나무가 보이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으며 살아가는 내 모습 투영" "남편 하루 작가와 늘 도전하는 작업하자 이야기하죠"

고, 학교가 보이고 그런 식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시선이 '안으로' 자연스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림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장난감, 살림살이 등이 자연스레 등장하게 됐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장난감 중엔 제가 갖고 놀던 것도 있는데 아이들과 제가 연결되는 끈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북대 서양화과를 거쳐 조선대 서양화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임 작가는 2013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스튜디오에 입주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이 때 같은 입주작가였던 '음식 산수'의 하루 작가와 2014년 결혼하면서 광주에 정착해 작업하고 있다. 특히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지난 2016년 호랑기사나무 레지던시 8개월간 머물며 많은 작업을 했다.

아들·딸 두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주어진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 작업한다.

"위태롭게 쌓여있는 장난감이나 대형 풍선을 지고 있는 작은 코끼리는 제 자신을 투영한 모습인데 코끼리는 모성애가 엄청 강하다고 해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어지고 나가보자 그런 일종의 책임감입니다. 작고 애소한 존재지만 결

국 버텨나가는 거죠.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시는 것 같아요."

전시작들에 사용된 재료들은 다채롭다. 스미는 느낌과 선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종이의 질감을 좋아해 그 위에 연필과 과슈로 작업하기도하고 아크릴 물감을 수채화처럼 쓰기도 한다. A3 크기의 종이에 작업한 임 작가의 드로잉 작품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장난감의 경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화려한 컬러로 작업한 신작도 눈길을 끈다.

몇년 전 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하루 작가에 대해 그녀는 "진짜 열심히 하는 작가고, 고인 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늘 변화에 목말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함께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된 모습의 한 축이 정제된 공간만을 그리던 데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며 작업하게 된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우린 아직 젊으니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늘 도전하자고 서로 다짐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작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혼, 육아 등과 밀접한 그녀의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상영중인 '82년생 김지영'을 연상시킨다. 그 전에 단독자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곡에서'



'무게를 견뎌라'

강숙자오페라라인 '두개의 문' 8-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강숙자오페라라인 제27회 정기공연 오페라 '두개의 문'이 8일(오후 7시30분), 9일 오후 3시·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은 2001년 창단공연을 가진 이래 현재까지 오페라, 갈라콘서트, 뮤지컬 등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민숙연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메피스토펠레스', '리골레토', '파우스트', '카르멘' 등 총 8개의 작품을 재구성해 선보인다. 공연은 지하세계의 왕 메피스토펠레스가 인간의 더럽고 흉악한 모습을 통해 인간을 창조한 신에게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준

주요 아리아는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 '금송아지의 노래', '오 사랑여는 나의 아버지', '모든 축복받은 날에', '지난날들이여 안녕', '별고 먼 나라로', '이미 여명이 다가오고' 등이다.

메피스토펠레스 역에 김장준, 가브리엘 역에 민숙연·박희현, 스페라푸를레 역에 김일동, 리골레토 역에 이하석·손승범 등이 출연한다. 반주는 클랑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티켓은 온라인(인터파크)과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올 백석문학상에 나희덕 시인

'파일명 서정시' 시대현실에 맞선 작품

올해 제21회 백석문학상에 나희덕(53)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파일명 서정시'이며 상금 2000만원.



나희덕

나 시인은 이에 앞서 올해 9월 제19회 고산문학대상 현대시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감시와 착취, 죽음과 절망이 도처에 존재하는 시대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는 시집"이라며 "세계에 편재한 죽음의 중후를 속에서 비극적 인식의 언어를 거침없이 토로하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전혀 다른 시세계를 보여주며 리얼리즘 시의 예리한 경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나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뿌리에게', '야생사과',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을 냈다. 조선대 문창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몸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 '살아있는 언어'전, 15일까지 산수미술관

'작가들, 몸에 대해 말한다.' 광주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이 몸에 관한 담론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언어: 몸, 감각적 사유'전을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감각의 주체인 '몸(Body)'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움직임(Moving)'에 초점을 맞춘 기획으로 고미아·박홍수·서현호·진시영 작가를 초대했다. 전시작들은 몸의 외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감각적 사유의 주체'로서 몸을 이야기한다. 장 관장은 이를 '세상에 반응하는 몸'과 '세상을 표현하는

몸'이라 말한다. 고미아 작가는 발레 동작을 응용한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몸은 춤의 활기찬 동작을 통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자연주의 회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작업하는 박홍수 작가는 소리의 시각화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의 생명과 그 소리의 기운은 그의 운필을 통해 갖가지 색채와 조형언어로 나타나며 화면에서는 생명의 역동성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서현호 작가의 작업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몸

은 다채롭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가 하면 어딘가 불편한 듯 뒤틀린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에게 인간의 몸은 자유의 상징이자 소통의 수단이 된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인간 몸의 아름다움과 움직임을 탐구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는 무용수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화면 속 무용수들의 춤사위가 다양한 색과 형태의 빛으로 전환돼 그들의 몸과 배경에 투사되고 빛으로 나타나며 신체의 확장을 시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미아 작 '비상'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